

2019 홍천 인삼·명품 축제 3일 개막



◇명품 홍천 인삼을 홍보하는 축제가 10월 3일부터 4일간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4일간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원서 인삼 홍보 민관군 화합한마당 잔치, 풍물 야시장 등 다채

홍천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넓고 국토의 8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청정지역이 많이 보존되어 있다.

인삼은 수확 후 약 10년간의 휴경이 필요한데 홍천은 인삼을 심을 깨끗한 새 땅이 많이 남아

있어 최고의 인삼 재배지로 유명하다.

이런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홍천에서 2019 홍천 인삼·명품축제는 2019.10.03(목)~10.06(일) 4일간 강원도 홍천군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진행되며, 2019.10.03.(목) 오전 11시 개장식을 시작



으로 민관군 화합한마당 잔치, 홍천강 명품 음악회, 한마음 콘서트, 홍천강 가요제, 홍천강 풍물 야시장, 옛날 시골마을 풍경, 만원의 행복, 체험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펼쳐진다.

홍천군노인복지관

2020년 쿨한 1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충족시켜줄 다양한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내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강신청기간	2019년 10월 21일(월) ~ 10월 25일(금)	
추첨일	2019년 10월 28일(월) 1시 본관 3층 예술극장	
수강료납부기간	2019년 10월 28일(월) ~ 11월 1일(금)	
수강기간	2019년 11월 4일 ~ 2020년 3월 31일(5개월)	
환불신청기간	2019년 11월 11일(월) ~ 11월 15일(금)	
★세대별 추천프로그램	60대~70대 초반	70대 중반 ~
	가요댄스A, 라인댄스A 사교댄스, 밸리댄스	가요댄스B, 라인댄스B 장수체조, 웃음치료

유의사항	- 정원이 모두 모집되어야 프로그램 개설 - 모집 정원의 초과 과목에 대해 추첨제 진행 - 초급, 중급으로 구분된 프로그램은 동시수강 불가함 - 프로그램 동일 시간대 중복신청 불가 - 프로그램별 재료비는 본인부담임 - 평생교육 프로그램 환불 신청 시, 일주일 이내로 환불요청 바람. (일주일 이내로 환불 미 요청 시, 환불처리가 안됩니다.)
문의	홍천군노인복지관 ☎ 033) 430-8700

CONTENTS



02 - 살만한 홍천
03 -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04 - 경로당 탐방 시리즈
05 - 스포츠 및 행사
게이트볼 시리즈

06 - 문화행사
07 - 산업혁명시대, 이미 와 있는 미래
08 - 기자칼럼, 독자칼럼



살만한 홍천**홍천읍 와동리 공작산 수타골 김종성씨(74세)**

홍천 명산 ‘공작산 자연인’ “제2 인생이 무척 행복해요”



◇6년전 홍천읍 와동리 공작산 수타골에 정착한 김종성씨가 산중생활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다.



“젊은 시절 직장생활·개인사업에 최선 30년 홍천 산사나이로 건강생활 만족”

**30년 전 부모님 산소 모시려 했던 ‘최고 명당’
“성묘 다니다가 수타골 정취에 홀려 정착”**

김종성씨는 안산시에 살며 자영업으로 크게 성공한 30년 전, 부모님 묘지를 쓸 산을 구하려고 전국 명산을 다니다가 홍천읍 와동리 공작산 수타골에 6천 평을 매입했다.

그 후 몇 년 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이곳 능선 중앙 ‘좌청룡 우백호’ 명당 터에 합장으로 모셨다. 부모님도 생전에 답사 하시고 만족해 하셨던 곳이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 외에도 수시로 성묘를 다니며 움막을 짓고 이따금 머무르던 김 씨는 6년 전부터 아예 산 속으로 들어와서 ‘공작산 수타골 자연인’이 되었다.

당시 지관이 이 일대 최고 명당이라며 정해준 곳에는 왕가복에도 마르지 않는 사철 약수가 있다. 소나무와 참나무 낙엽송 등 울창한 숲 가운데 아늑하게 자리잡은 숙소는 자연 카페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3면이 강화 유리로 지어진 2층 방에서 각 방향을 살펴보면 각양각색의 천연 산수화가 그려진다. 잠자리도 편안하고 음식 맛도 좋고 기분이 늘 상쾌한 산중 생활 매력에 푹 빠져서 이 곳을 벗어날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

취미 생활로 소일하는 아내와 미술을 전공한 딸 사위가 가끔 반찬을 만들어 줘서 산중이지만 영양

을 보충하고 산채나물로 즉석 식단을 준비해 식생활도 즐겁다고 했다.

**“회사 직원, 중동파견 때는 남보다 열심
개인사업 때 직원 존중 고객존중 최선”**

김종성씨는 국제그룹 회사원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새벽부터 통금 직전까지 근무했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의복을 정갈하게 갖추고 예의를 갖듯이 지켜 모범 사원으로 인정받았다.

중동 오일 달러를 벌기 위해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 리치를 이룰 때, 김 씨도 이 바람에 휩쓸려 중동에 진출하여 한 달에 5개월 치의 월급을 받는 등 큰돈을 벌었다. 사업자금을 형성한 김 씨는 안산시 중앙역 근처에 대형 식당을 차려 마침내 개인사업의 꿈을 이뤘다.

직원들에게 하절기·동절기 장기간 휴가와 오전 휴식시간을 주고 급여를 과격적으로 지급하는 등 처우 향상에 관심을 가졌더니 직원들도 여기에 화답하여 안산에서 장사가 제일 잘되는 식당이 되었다고 한다. 이때 번 돈으로 노후를 위해 사놓았던 부동산들이 지금의 생활에 토양이 되고 있고 30년 동안 산에 오르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김 씨는 직장생활을 할 때도 성실 근면한 태도로 근무했고 자영업 할 때도 최선을 다한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했다.

“욕심 없이 자연을 즐기는 현재의 삶이 편안하다.”는 김 씨는 “공작산 수타골의 명당을 찾은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했다.

**홀로 지은 움막 어느 펜션보다 훌륭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살만한 홍천’**

“돌이 하면 20~30분에 할 작업을 혼자서 4시간 씩 소요하며 움막을 지었다. 그래도 힘들거나 짜증을 느끼지 않았다. 오늘 못하면 내일하면 되고, 하다가 피곤하면 쉬면 되는 것이 산중 생활이다.”

금년에는 아내도 도시를 벗어나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무남독녀 출가한 딸이 어렵사리 손주를 잉태하여 딸 곁에서 출산준비를 한다며, 김 씨는 가족 소식도 알려줬다.

사철 끊이지 않는 천연약수에 꿀을 넣은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산속 자연인들이 이 맛에 산을 떠나지 못한다.”는 김 씨는 이어 능숙한 솜씨로 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어 권했다.

“전국 산을 다니다시피 하며 부모님 모실 명당을 구하려다 이 곳을 찾았는데, 이곳 정취에 반해 자신이 자연인이 되었다.”는 김 씨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활공간이다. 혼자 있어도 무서움이 들지 않고 편안하고 아늑하다.”며 건강미를 과시했다.

“홍천 5일장에 장보러 나가며 시내 구경하면 사람들이 훈훈하고, 산 속에 들어오면 산이 감싸 안아준다. 나의 인생 홍천이 있어 행복하다.” 김 씨의 목소리에는 카랑 카랑한 공작산의 정기가 서려 있었다.

허남영 기자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내촌면 척야산 문화수목원

척야산 26만㎡에 구국 역사 문화관광 성지 조성



◇홍천군 내촌면에 조성된 척야산 문화수목원에는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길수 있는 조형물들로 가득하다. 사진 오른쪽은 기미만세상.

3·1만세운동 주도 김덕원 의사 등 항일정신 기려 광개토대왕비, 발해 석등 등 건립 민족정기 선양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국 곳곳에서 심심치 않을 만큼 기념행사가 많이 진행된다.

그런데 유독 나라 안팎으로는 시끄러운 일들이 많은 해인 것 같다.

문득, 지금의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 목숨 바치신 선열들의 비를 세워놓은 곳이 생각나서 발길을 옮겨 보았다.

동창기미만세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조성한 “척야산 문화수목원”이 바로 그곳이다.

홍천의 척야산 문화수목원은 척야산 일대 26만여㎡를 구국, 역사, 문화관광의 성지로 꾸며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10만 주의 꽃을 식재해 사적공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3·1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김덕원 의사의 후손이 가꿔놓은 수목원으로서, 누구나 무료로 이 아름다운 곳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작지만 다른 곳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곳에는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19년 4월 3일 장두 김덕원 의사를 비롯하여 홍천의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일제에 항거했던 역사적 현장(동창만세운동)이라는 점이 의미가 깊다.

그런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거대한 돌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놓았다. 입구에 들어서면 민족정기 광장이 있다.

민족정기 광장 윗편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명한 광장이다. 멀리 광개토대왕비가 서 있고 옆에는



발해 석등이 민족정기 광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실물과 모든 게 똑같으며 만주 현지에서 직접 가져온 돌로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광장엔 고구려시대의 광개토대왕비, 발해시대의 석등 및 요망대기, 그밖에도 이순신장군,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어록, 홍천 만세 운동 기념비 등등의 비문이 꼭 차게 자리잡고 있다.

우리 역사상 위대한 분들의 삶과 우국충정의 자취를 새긴 비문을 읽자니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독립운동을 위해 자신을 바친 애국지사를 떠올리게 하며 숙연한 마음가짐으로 나라 사랑을 다짐하게 한다.

광장을 둘러본 후 산을 오르면 그 첫봉에는 청로각이 척야산을 지키고 있는 듯 마을을 바라보면 평화로운 동창들이 가지런히 한눈에 들어온다.

그 옆에는 가수 이미자님이 부른 척야산 진달래 노래비가 산길에 단아하게 서 있다.

산 정상에서는 유유히 흐르는 용호강을 내려다 볼 수도 있다. 4월에는 노란 개나리와 분홍빛 목련이, 5월에는 빨간 철쭉꽃이 만개하여 절경을 이룬

다고 한다.

약수터 영천(零泉), 까막죽배기의 유래, 벼락바위의 유래 등 척야산 바위들의 전설을 들으며 1시간 30여분의 등산시간 동안 능선 곳곳의 정자에서 쉬면서 피톤치드와 음이온을 느낄 수 있었다. 홍천의 애국지사, 홍천의 독립만세 참여 열사 등 항일투사들의 활동을 다시 한 번 인식하며 몸과 마음에 민족정기를 받는 계기가 되어 더욱 의미있는 산행이 되었다.

이토록 가꾸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30여년간 자신의 사비로 일구어 많은 사람들에게 민족정기를 심어주고 풍요로움을 주는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동창기미만세운동 기념사업회 김창묵 회장님은 보람을 이야기한다.

마음으로만 애국지사를 부르짖는 현실 앞에 그 날의 애절한 독립의지로 일제의 강압과 총탄에 쓰러진 그들의 영혼이나마 위안하러 그는 노년의 정열을 이 척야산 수목원에 쏟아 붓지 않았을까.

모쪼록 이 아름다운 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연을 벗삼아 걸으며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동창로 282
(물걸리 306-2)

전화번호 : 033-435-6546

무료 입장

주차장 넉넉함, 주차비 없음

볼거리 : 발해석등, 민족정기수련광장, 동창 사상 독립운동 기념비, 광개토대왕비, 김덕원 의사 추모비, 꽃피는 언덕, 철쭉길, 시크릿가든, 의사봉, 사국봉, 요망대, 전망대, 세류정, 청류정, 장수길 등



조하경 기자

365일 연중무휴 개방 회원들 웃음꽃 활짝

**건강 체조·문예 교실 운영 즐거운 시간 보내
마을개발사업 적극 참여 모두가 행복한 마을**



◇건강 체조를 하고 있는 결운2리 경로당 회원들.

홍천읍의 결운2리 경로당을 방문한 날은 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어 날씨와 더불어 경로당 주변 분위기가 묘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속에 마침 대한노인회 홍천군지부에서 주관하는 건강체조 교실이 최인순 강사의 지도아래 진행되고 있었다.

건강체조 교실은 노인회 회원들이 모여 올 한 해 동안 매주 1회 지도강사와 함께 건강 체조를 통해 건강은 물론 율동과 노래도 하며 즐거운 시간도 되고 회원간 친목도 돈독히 할 수 있어 행복감을 느끼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노인회 회장이신 이영재(76세)어르신께서는 “홍천군 꿈그린 학교 문예교실”도 진행하고 있는데 최인순 강사가 함께 지도하고 있고 주로 할머니들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매주 1회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평생의 한인 글을 배우고 익히며 시도 쓰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자랑한다.

이회장께서는 올봄부터 회장직을 맡아보고 있는데 2년의 임기 동안 회원들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 회장직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하신다.

경로당의 최고령 어르신은 이상복, 이희호 두 분이 88세로 동갑이라고 한다. 이회장님께 마을자랑, 경로당 자랑을 부탁하니 경로당을 1년 365일 연중무휴로 개방하여 회원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점심식사를 경로당에 나오신 회원 모두 함께하여 혼자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신다.

마을의 형성은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를 받던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들어 마을을 이뤄 옛부터 마을에 공소(작은 천주교 성당)가 있어 일제시대에는 천주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비밀 독립운동도 전개하였다고 하며 마을의 옛 지명은 웅기 가마

가 있어 자연스럽게 웅기골로 불리었다고 한다.

웅기골에 대해서는 김종해 어르신(86세)께서 마을에서 몸소 웅기사업을 켜어서 하셔서 잘 알고 계셨다.

홍천에 웅기를 굶는 마을이 결운리를 비롯 송정리, 연봉리 등 3개소에 있었다고 한다.

김종해 어르신께서는 웅기가마 2개에 웅기쟁이 6명을 두고 그릇, 향아리 등을 1년에 약 2,000개 정도를 생산하셨다고 하며 웅기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1981년 48세가 되던 해에 웅기사업을 접었다고 하신다.

지금도 웅기가마터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웅기가마가 복원되어 홍천군의 볼거리, 자랑거리가 또 하나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마을표지석 앞에서 포즈를 취한 마을이장과 경로당 회원들.

이회장께서 옆에 있는 신교인 마을이장을 소개하며 마을이장이 62년생으로 젊어 마을과 노인회를 위해 부지런히 마을일을 하고 있다며 이장을 치켜세우신다.

마을이장은 결운2리는 120호로 250명이 거주하며 귀농·귀촌인들이 약 50%라고 한다.

마을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사업”에 선정되어 농촌현장 포럼을 4회 진행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마을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관광버스 2대로 다녀 왔단다.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도약 마을사업에도 도전하는 등 계속 마을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어르신을 위한 건강기구, 운동시설을 구비하는 등 마을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한다. 마을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열의도 대단하다며 주민 모두를 위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목표라고 한다.

마을회 주관으로 적사대회를 매년 개최하며 청

년회, 부녀회 등과 함께 어버이날, 초복, 중복, 말복 등에 경로당에서 경로잔치 등 열고 있단다.

특히 청년회(회장 정영기)에서 마을일에 솔선수범을 하고 있어 든든하다며 청년회에서 매년 마을 하천 가꾸기, 마을길 풀베기 등 마을의 깨끗한 일을 맡아하는 등 마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단다.

마을주민들이 마을중심부에 ‘꿈과 희망의 터전 결운2리’라는 표지석을 세우고 팔각정을 만들고 마가목 240그루를 심어 꽃동산도 조성하였으며 마을 앞을 지나는 지방도로변에 서석균 전회장이 주도하여 백일홍을 심었다고 한다.

백일홍은 주민들이 직접 꽃씨를 과감하여 백일홍 모종을 만들어 심은 것이어서 더욱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단다.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변에 심은 백일홍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경로당 회원들.

또한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소각로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되어 표창도 받고 선정표식을 마을회관에 부착하여 모범적인 마을임을 알리고 있었다.

“소각로 없애기 운동”은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통상 농촌마을에서는 집집마다 소각통 1개씩은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쓰레기들을 소각하는 것이 평생 동안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오랜 습관인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태우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 녹녹치만은 않은 것이었는데 마을주민들의 협조가 대단했다고 한다.

특히 평생의 습관을 과감히 타파하고 솔선수범한 경로당 노인회분들의 공로가 제일 컸다고 한다. 홍천군 재원이든 개인 재원이든 돈이 들어가지 않고 습관만 없애면 되는 “소각로 없애기 운동”을 홍천군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명실상부한 청정 홍천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해본다.

군민들의 건강은 물론 환경 보호, 산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이 운동을 홍천군 차원에서 전개하여 “소각로 없는 홍천군”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면 홍천군 인구유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소열 기자 (silverhong21@naver.com)

스포츠 및 행사

제14회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

“건강체조로 활기찬 노년 보내세요”

제14회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 8일 예술회관서 개최
12개팀 참가 기량 발휘 건강한 생활 확산



◇홍천군보건소가 주최하는 제14회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가 8일 예술회관에서 열린다.

홍천군 보건소 소장(김정미)은 “제14회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를 2019년 10월 8일 오전 10시에 예술회관에서 개최하고자 한다.

보건소에서는 해마다 군 노인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건강 체조를 훌륭하신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과 지역민이 다 함께 땀을 흘리시며 같고 닳은 기량을 한자리에서 선보이신다고 한다.

◇제14회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

경연대회 : 읍 면 지역팀과 경로당 12팀 참여

홍천군민의 한마당 건강 축제에 참여자들은 보건소에서 지난 9개월동안 운영한 아름다운 노년 건강 백세 운동 교실 참여자들로 건강체조 건강백세체조 등 그동안 같고 닳은 숨은 기량과 장기를 맘껏 뽐내려 한다.

홍천보건소는 10개 읍면 204개의 경로당에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 1만8천여 명의 고혈압, 당뇨, 자살치료 예방까지 책임지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아 실천하고 있다. 제14회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에 참여하는 12개 팀의 면면을 보면 지역팀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여 우승과 입상을



하고 또한 지역 경로당에도 활성화가 되었으면 한다.

지역팀으로는 희망1리장(남궁창선)은 동 주민과 이웃주민 어르신들을 추천하여 홍천군 향교 넓은 마당에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08:00부터 09:00까지 한 시간씩 회원 40~50여 명이 함께 땀을 흘리며 건강을 위해 훌륭하신 강사(김혜경)를 초청하여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함께 운동을 하고 있다.

이번 제14회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에도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열심히 하고 같고 닳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 보겠다고 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홍천군과 보건소의 행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하며 앞으로 지역적으로도 더 많은 강사를 보강하여 홍천군 노인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14회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를 마치며 보건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에 건강 증진 뿐 아니라 운동실천 생활화와 경로당에 지속적인 강사 투입으로 지역사회 건강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하시도록 신바람 나는 홍천군 노인분들을 위해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대회로 군민과 마을 주민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로 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홍천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홍천군 지역민들은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과 전 직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안태수 기자

게이트볼 시리즈

4개면 게이트볼대회 32개팀 출전 상황

홍천군 4개면 게이트볼 대회가 9월 24일 홍천군 동면 공설운동장에서 4개면 32팀이 출전하여 열띤 경쟁 속에서 개최되었다. 게이트볼 경기는 농촌의 어르신들이 농한기에 도박이나 음주문화가 성행하므로 이 퇴폐문화를 근절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여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게이트볼 경기장을 건립해 주었다. 이후부터 퇴폐문화가 사라지고 건전문화가 꽃피었다. 2016년 서면 2017년 남면 2018년 화촌면 2019년에는 동면에서 개최되었다. 4개면 게이트볼 대회 결과는 1등 후동팀 2등 덕차팀 3등 영동팀 4등 힐링팀이 차지하였다.



북방 상화게이트볼장 이전 시급

홍천 상화게이트볼장은 당시 북방면장이던 김원종씨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립하였다. 기초공사를 할 때 무소유 공동묘지였기에 3기의 무덤에서 유골 3구가 나왔다. 북방면 1호 게이트볼장은 여27명, 남31명 총 58명이었다. 홍천 게이트 연합회장이신 김주용씨도 이곳 출신이다. 지금은 여5명, 남7명 총 12명이다. 동네 어르신들이 산위에 게이트볼장이 있어 오시다가 동네 교통 좋은 곳에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에 머물러 있다고 상화 게이트 클럽 회장 이명식은 증언하였다.

하루속히 상화게이트볼장이 동네 중심에 있는 것이 급선무라고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르신들의 별세로, 무릎관절로 수가 줄어들고 공동묘지와 산에 위치해 있다는 불편함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상화게이트볼장이다.



이광명 기자

“우주 사이에서 벌어지는 온갖 현상을 미술에 접목”



◇홍천미술관에서 ‘집소성대’란 생소한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는 박대근 화가.

‘홍천 9경’ 미세한 선으로 표현한 작품 만들고 싶어 벗짚 활용한 북방면 능평리 예술제 설치미술도 애착

홍천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집소성대의 박대근 화가를 찾았다. 다소 생소한 현대 미술의 영역인 집소성대의 이모저모를 알아봤다.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

지금은 물질의 풍요로 모든 것이 넉넉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1960년대의 생활상은 궁핍의 시대였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보살핌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시절은 물감을 구하기도 힘들고 색상도 단조로웠지만, 친구들이 12가지 색을 쓰면 아버지는 24가지 색의 크레파스를 구해 줄 정도로 저에 관한 관심과 뒷바라지가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보더라도 제가 화가가 된 것은 돌연변이에 가깝습니다. 집안 식구들 어느 누구도 그림을 그리며 소질을 보인 가족이 없습니다.

집소성대의 작품세계를 말씀해 주신다면?

집소성대란 사전적인 의미로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대양을 이루듯이 자연의 모든 우

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들이 하나의 미립자 집합체라 봅니다. 그런 원리를 미술에 접목해 자유분방하게 선들을 연결하고 겹치고 변형시킴으로써 내적 세계의 시각적이며 추상적으로 자연의 변이를 보여 주는 데 있습니다.

자연의 변이란 우리가 익숙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며 대자연의 생명체와 무생물까지도 유기적인 선을 이용해 움직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집소성대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강원대학교 예술대학과 동 대학원에서 추상표현주의와 행위 예술에 있어서 행위성에 관한 연구했습니다. 서양화를 전공하면서 주로 추상화를 그렸으며 조형언어의 조립은 점, 선, 면의 3요소에 대한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을 느낄 때는?

작업 노트를 마음속에 구상하며 영매 작용이 일어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앞으로의 구상은?

홍천의 9경을 미세한 선으로 연결해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문화제도 작품을 크게 만들어 의미와 가치를 담아낼 계획입니다.

지금 11번째의 전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동시에 3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전람회가 끝나면 여행도 하면서 긴장도 풀며 다음의 주제를 작업 노트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박대근 화가는 홍천의 북방면 능평리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능평리는 3회째 예술제를 하고 있는데 설치미술의 진면목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한다.

농사의 부산물인 벗짚을 이용해 용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작품을 마을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예술 세계를 이끌어가는 박대근 화가의 열정과 지역 사랑은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

나 역시 그곳을 우연히 지나다 논바닥에 여러 형상의 설치미술의 아름다움에 빠진 적이 있었다. 원래 예술은 고독한 것이다.

그는 서울에 사는 가족과 떨어져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워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김정현 기자

산업혁명시대, 이미 와 있는 미래

“4차산업혁명시대 배워야 즐길 수 있다”

‘IT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사회’ 진입
건강, 평생교육, 디지털문맹 탈피, 자산관리 중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심지어는 것
돌 지난 아이도 알 정도로 요즘 자주 쓰이는 용어인
데,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질
문을 받는다면 한마디로 ‘이것이다’라고 정의하기
참으로 애매하다.

어떤 이들은 ‘인공지능(AI)’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빅데이터’라고도 하며, 또 다른 이들은
‘사물 인터넷(IoT)’, ‘가상현실(VR)’, ‘자율자동
차’, ‘공유경제’라고도 한다. 맞는 말들이지만 개
운한 설명이나 정의는 아니다.

우리는 일찍이 과학기술의 대 변혁기마다 각각
1,2,3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써왔다, 증기기관
과 대량생산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전기,
전화,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 그
리고 인터넷 정보기술로 대표되는 최근의 ‘3차 산
업혁명’이 그것이다.

이러한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류의 오랜 숙원이었
던 ‘생산성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면 “4차 산업혁
명은?” 이에 대해 미래학자들은 ‘IT와 인터넷을 기
반으로 하는 초 연결사회’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이미 1982년에 미
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이 소개한바 우
리나라에서는 《제4의 물결》로 알려진 그의 책에서
언급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관심으로 제일 먼저
독일이 2010년에, 미국이 2011년에, 중국도 2014년
에 ‘중국제조 2025’라는 타이틀로 각각 4차 산업혁
명의 시동을 걸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15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정
부 차원의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6
년도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커
다란 충격으로 온 국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
심을 높이게 되었다.

이제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파도 타는 사
람들(서퍼)은 밀려오는 파도를 예측하고 파도를 탄
다. 그래서 능숙하게 즐기면서 파도를 탄다고 한

다. 하지만 이러한 파도의 속성을 모른다면 밀려드
는 파도에 물을 먹거나 파도에 휩쓸려 목숨까지 잃
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파도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미 이 파도에 적응하도록
교육받고 있으며, 직장인들도 현장에서 나름대로
적응해가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은퇴를 했거나 이제 은퇴를 하는 소위 말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 고령화 사회의 당사자
들이다. 이들은 농경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
화 사회까지 모두 겪으면서 그 변화의 놀라운 스피
드에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은퇴의 여유로운 삶을 산다 싶었는
데 날벼락 같은 ‘4차 산업혁명’이라니. 더욱이 이
미래는 현재 진행 중이다.

다가올 미래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인한 삶의 연
장, 자원 부족, 더 높은 단계의 기술 발전과 혁신,
글로벌 지식 사회, 로봇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한
사회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때문에 홀로 산속에서 문명과 떨어져 산다면 문
제될 것이 없지만 사회관계망 속에서 부대끼며 살
아가야 한다면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파고
를 잘 넘으려면 어찌해야 할까?

첫째, 건강 문제는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의학
의 발달로 수명은 늘어나지만 문제는 유의미한 장
수 생활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삶의 연장이 가능한 시대가 오지만 병상에서 보
내는 장수는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젊은이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며 정신적으로도 문제없는 장
수를 원할 것이다. 운동과 건강관리는 필수적일 것
이다.

다음은 평생교육이다. 지금도 평생교육 시대이
긴 하지만 차후로는 자신의 전공뿐만 아니라 급변
하는 지식 생태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할 것이다.

정보는 거의 바다같이 널려 있지만 이를 효율적

이고 기능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로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또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세상을 살아가려면
디지털 문맹(Digital Illiteracy)도 극복해야 할 과제
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문맹을 줄
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아날로그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기차표 모바일 예매’라든지 ‘무인 키오스크 주
문’, ‘스마트폰 송금’ 등의 내용을 교육시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다. 우리는 예로부터 돈을
언급하는 일을 터부시했다. 자산관리는 곧 천박한
돈 이야기라는 생각으로 서로 말하길 꺼린다. 학생
시절을 돌이켜보아도 실용적 금융지식을 배울 기회
가 거의 없었다.

사회에 진출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역시
배울 기회가 없다. 각종 매체의 경제란은 금융지식
이 없으면 이해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의 금융 문
맹(Financial Illiteracy)은 OECD국가 중 창피할 정
도로 수치가 높다, 60~70대가 55%, 20대는 더 높은
62%다. 아마도 20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금융지
식을 배울 것이다.

자산관리는 왜 중요한가? 예전이라면 은퇴 후 기
대수명이 20년 안팎이었을 것이다. 있는 자산으로
적절히 소비하면서 살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제는 은퇴 후에도 족히 4~50년은 더 살아가야 할 것
이다. 생산 활동을 더 하거나 있는 자산을 불리는
수밖에 없다.

부동산이나 예·적금 외에도 주식, 채권, 현물
(금, 은, 외화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금융지식에 알파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것도 공부다.

이미 와 있는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참으로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변화도
상당히 빠르다.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든다. 지난 시
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했지만 나로서
는 “인생은 길고 세상은 빨리도 변한다.”

그래서 “인생은 길고 배워야 할 것은 많다.”라는
생각이 든다.

김민호 기자

기자칼럼**김 정 현**

홍천실버신문 기자

이젠 가을이다. 여름철의 더위에 시달리다 보면 가을이 그리워진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것도 많지만 천고마비의 계절에 오히려 무르익은 황금빛의 풍요로 가득 찬 과도치는 벼 이삭들의 물결일 것이다.

몸과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는 계절이 우리의 곁에 왔다. 예로부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했던가? 지금은 계절에 상관없이 독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주변에 얼마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작은 마을까지 도서관이 있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작은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하버드의 졸업장보다 낫다고 독서의 필요성을 빌 게이츠는 이렇게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성인의 독서량이 1년에 7권이라는 신문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사람은 음식을 섭취해 체력을 배양하고 독서를 함으로써 정신력을 배양한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오른다. 날마다 하루 3개의 밥을

마자 남편은 옆자리로 옮겨 책을 읽고 있었다.

그동안 아이와 함께 엄마는 그림책을 펼쳐놓고 놀아 주고 있었다. 약 한 시간이 지났을까? 이번에는 아빠가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보는 동안 아이의 엄마는 옆자리로 옮겨 열심히 책을 읽는 광경이 경이롭기까지 했다.

우리나라의 전철 안의 풍경과 사뭇 대조되었다. 열차 안을 둘러 보아도 모두 다 책을 읽고 있어 문

더 혼탁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

좋은 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과 같다. 독서는 습관이다. 시간이 없다고 말들을 하지만 시간은 만들면 된다.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떨어지는 순서를~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가련한 낙엽이 되리라/ 가까이 오라 벌써 밤이 되었다 바람이 몸에 스민다/ 시몬 너는 좋으나 / 낙엽 밟는 소리가” 프랑스의 시인이자 평론가였던 리이 드 구르몽의 시 “낙엽”의 한 구절이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명시다. 가을이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유유히 떠가고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칠 때 우리의 무딘 감성도 날개를 단다. 이 가을에 한 권의 시집이라도 읽어 보는 삶의 여유를 가져 보면 좋지 않을까?

98세에 시인이 되어 시집을 발간해 화제가 되었던 일본의 시바타 도요 할머니가 생각이 난다.

누가 알겠는가? 책을 읽다 보면 자신의 잠재력을 드러내 시바타 도요처럼 베스트 셀러 작가가 될는지…….

가을은 독서의 계절

먹으며 체력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정신도 책을 읽음으로써 정신을 살찌워야 한다.

당나라의 시인 두보는 모름지기 사람은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여행 때의 인상 깊었던 광경이 지금도 가끔 동영상처럼 펼쳐지곤 한다.

테제베 열차 안에서의 일이다. 나의 앞자리에 젊은 부부가 6살 정도의 여자아이와 같이 탔다. 타자

화 선진국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았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속담과 같이 독서는 우리의 정신을 충실하게 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자기 발전을 위해 선인들의 사상과 지식을 독서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비주얼 시대에 눈앞에 스치는 찰나적인 감각에 익숙해 작금의 사회문제가

독자칼럼**이 세 현**

전 춘천시 경제인연합회장

날씨가 조석으로 선선함을 더하고 있다. 본 필자가 2018년 1월 26일 강원도 신문을 통해 기고한 바가 있어 다시 펜을 들게 되었다. 다름 아닌 춘천시청 신청사 건립 문제 때문이었다. 그 당시 춘천의 겨울날씨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때였다. 그 날씨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모습을 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실공사가 되면 어찌나 하는 염려스러움에 기고문을 냈던 것이다. 그때의 기우(杞憂)가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청사에 빗물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방송을 여러 춘천시민이 보았을 것이다.

특히 동절기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맹추위에 콘크리트 타설은 양생에 많은 영향을 준다. 공기(工期)를 맞추려고 서둘렀는지는 모르겠으나 무리한 동절기 공사로 구조물에 대한 하자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과거보다는 건축 시스템이나 자재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절기 콘크리트 시공은 보양에 신경을 써야 하고 아무리 한중(寒中)콘크리트를 쓴다 해도 보양재가 부실하면 콘크리트 양생

보았던 것도 아닌데 공사 뒷설거지도 안된 상태에서, 열흘 묵던 나그네 하루가 바쁘다는 옛말처럼 무엇이 그리 급해서 서둘러 이삿짐을 썼는지 모르겠다.

관청 일은 개인사업이 아니라 공공성을 띤 혈세가 지출되는 일이기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함은 민원수령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필자가 아침이면 공지전변에 운동을 나간다. 그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지전 의암공원 내 조림은 그렇게 삼복더위에 나무를 이식해야 되는 곳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 조성된 공원이기에 말이다.

그리고 시청 주무부서에 주문을 한다. 제발 수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한번 심어 놓고 나 몰라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공지전 공지교를 건너면서 좌측에 아름드리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여러 그루 있다. 그 나무 밑에 원형으로 철제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나무가 자라면서 그 철제조형물이 나무 밑둥을 파고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필자가 3개월 전에 시청 주무부서에 알린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손을 안대고 있어 답답함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다.

춘천은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며 시민이 주인이라는 오픈 시정을 하고 있다. 과연 시민이 주인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바라건대 제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주길 바란다. 그것이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소통하는 행정이 되는 것이다. 주인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리라 믿고 줄이고자 한다.

기우(杞憂)가 현실로

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콘크리트는 타설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물과 함께 반응해 경화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물이 얼게 되고 콘크리트 입자가 제대로 양생될 수없이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잘못됨을 잘 아는 관에서 동절기 습식공사를 강행토록 묵과한 것은 주무관청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천막청사에서 시정을

곳에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다.

그런데 식재과정에서 너무 조밀하게 식재되는 것을 보았다. 수종도 맞지 않아 침엽수 바로 옆에 활엽수를 심어 활엽수가 웃자라면 침엽수를 덮게 된다.

모름지기 나무식재는 나무뿌리가 물을 빨아올리기 전 봄이나 물올림을 그치는 가을에 이식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는가. 물론 빨리 조림을 해야 되는 예외